



2026.9.7 (월)

통신/우주/미디어 Analyst 정지수 jisoo.jeong@meritz.co.kr
RA 박건영 geonyoung@meritz.co.kr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1W	1M	3M	6M	2026E	2027E	2026E	2027E	2026E	2027E	
KOSPI	-1.5	6.8	-18.1	19.7	6.5	4.9	1.6	1.3	2.1	2.7	
통신업종	-3.5	2.8	-7.2	5.4	11.3	10.5	0.9	0.9	4.2	4.4	
SK텔레콤	-4.1	2.2	-11.7	18.9	15.3	14.5	1.4	1.4	3.7	3.8	
KT	-0.4	2.8	0.0	-6.7	9.2	8.5	0.7	0.7	4.6	4.8	
LG유플러스	-0.9	-0.9	-2.2	-2.1	8.7	7.8	0.7	0.6	4.7	5.1	
AT&T	-1.3	11.4	12.9	-11.4	11.0	10.0	1.6	1.4	4.3	4.3	
Verizon	0.1	7.9	10.5	-2.0	10.0	9.5	1.9	1.8	5.6	5.7	
T-Mobile	0.1	4.6	1.9	-17.7	16.6	13.0	3.5	3.6	2.3	2.5	
NTT	2.4	14.3	18.2	14.9	13.7	12.8	1.4	1.3	3.1	3.2	
KDDI	2.0	4.4	12.4	11.3	15.0	14.1	2.1	1.9	2.8	3.0	
Softbank	8.3	-6.2	-24.7	44.7	31.3	33.1	1.7	1.7	0.2	0.2	
China Mobile	0.3	-3.7	-3.3	1.7	11.2	10.9	1.0	1.0	6.9	7.1	
China Unicom	0.0	-14.6	-23.6	-26.5	7.8	7.5	0.4	0.4	8.0	8.6	
China Telecom	-4.4	1.3	-6.7	-6.3	12.0	11.3	0.8	0.8	6.5	6.9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9월 첫째 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2.0%p 수익률 기록하며 Underperform
저제도 위성통신망은 국내 이동통신망의 백홀로 활용해 LTE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는 정부의 유권 해석 발표
SK텔레콤은 AI 활용 통신 인프라를 점검하는 솔루션 '툼다'를 상용화, 별도 점검 인력 없이 시설물의 50% 점검 성공
국내 기관은 LGU+ 순매수, SKT, KT 순매도, 외국인인 SKT, KT, LGU+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
2027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약 30조원으로 올해 대비 +25% 증액, AI전환에 9조원, 첨단기술 확보에 12조원 배정
베트남 해저케이블 8개 중 4개가 고장, 재발 방지를 위해 2030년까지 최소 10개 신규 해저 케이블 건설을 승인
2027년 우주항공청 예산은 1.6조원으로 올해 대비 +47% 증액. 매년 누리호를 발사하고 2030년 달 탐사 계획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주간 뉴스

▶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⅓ AI에 쏠는다...9.4조 배정 (뉴스1)

- 과기정통부 2027년도 예산안은 29조 6,476억원으로 올해 대비 +24.5% 증액, 역대 최대 기록
- 중점 투자 분야는 AI 대전환 9.4조원, NEXT 첨단기술 확보 12.4조원, 균형성장 8,537억원
-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분야는 AI로 올해보다 84.3% 증액됐으며 전체 예산의 31.8% 비중
⇒ 3대 메가프로젝트 7,956억원, 최상위 AI모델 기술 확보 5.6조원, AI 서비스 1.9조원 등
⇒ AIDC 분야에서는 국산화부터 실증, 수출 지원, AIDC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실증 지원 계획

▶ 우주청 내년 예산 47% 급증한 1.6조원...누리호 매년 쏘고 2030년... (조선일보)

- 2027년 우주항공청 예산안은 올해(1조 1,201억원) 대비 +47% 증액된 1조 6,491억원으로 편성
- 우주청은 연구개발을 넘어 미래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발사체와 달 탐사 분야 투자를 대폭 증액
- 발사체 예산은 2027년 5,629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 누리호 후속발사 지원 사업에 750억원 투입
⇒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발사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 주도로 연 2~3회 발사 체계 구축 목표
⇒ 차세대 발사체 개발 예산은 2,916억원으로 2.4배 증액. 1단 재사용과 대형 수송 기술 개발

▶ 철탑부터 광케이블까지, AI로 점검하는 SKT '툼다' (비즈워치)

- SK텔레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노후화된 통신 인프라를 점검하는 솔루션 '툼다'를 상용화 성공
- 차량 설치한 AI 카메라로 확보한 영상을 분석, 공사장, 선로 시설물 등 11개 유형의 점검 요소 탐지
- 플랫폼 기반은 AI 영상 플랫폼 '비스타'로 가상 공간에 실제 통신 설비를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 라이더 없이 차량, 드론 영상만으로 공사 현장이나 공사 징후, 장비 불량 등을 감지하는 것이 특징
⇒ SKT는 차량 6대를 활용해 별도의 점검 인력 없이 대상 유선 구간 시설물의 약 50% 점검에 성공

▶ 베트남 해저케이블 4개 동시 고장...국제 인터넷 트래픽 30% '마비' (지디넷코리아)

- 라이프라이딩에 따르면 베트남 해저케이블 8개 중 4개가 고장나며 전체 국제 트래픽의 30%가 마비
- IA 케이블은 9월 초 복구 작업 돌입 예정이지만, SJC2, AAE-1, AAG 케이블 복구 일정은 미정
- 현지 통신사인 VNPT와 비엠텔은 트래픽 우회와 용량 확충 진행. 트래픽 우회를 통해 용량 극대화
⇒ 라오스를 거쳐 싱가포르로 연결되는 지상 케이블로 트래픽을 분산시켰으며 노선 용량 증가 계획
⇒ 재발 방지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최소 10개의 신규 해저 케이블 건설을 승인

▶ 스타링크 위성망으로 LTE 백홀 가능...“관건은 이동사 망 통제” (이데일리)

- 저제도 위성통신망은 국내 이동통신망의 백홀로 활용하는 LTE 서비스 제공이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
- 미국에서는 스타링크와 T모바일 등이 위성단말 직접 연결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위성망 결합 진행
- 국내에서도 저제도 위성망으로 LTE 소형기지국과 코어망 연결이 전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
⇒ 다만 이동사가 아닌 제3자가 특정 이동사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소형기지국을 운영하려면 통제 필요
⇒ 정부는 위성 백홀과 소형기지국 간 연결을 기존 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 5G 속도도 '돈 낸 만큼'...보다폰소리, 슬라이싱 요금제 땀값 (디지털데일리)

- 영국 이동통신사 보다폰소리가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앞세워 5G 수익화에 본격 돌입할 계획
- 새 브랜드 '슈퍼모바일'을 공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활용해 기존 요금제 대비 4배 속도 제공
- 5G SA 기반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품질 조건에 따라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하는 기술
⇒ 해외 통신사들은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차별화하고 추가 비용을 지불한 이용자에게 우선권 제공
⇒ 최소 다운로드 속도는 15Mbps로 5G SA 망 내에서 이 속도를 미달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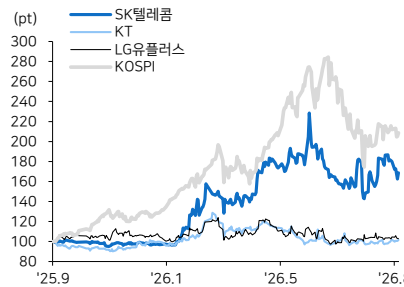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증가	시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통화)	총액	2026E	2027E	2026E	2027E	2026E	2027E	2026E	2027E	2026E	2027E	2026E	2027E
한국	SK텔레콤	93,000	14.8	13.0	13.3	1.4	1.5	1.0	1.0	4.0	4.1	5.1	5.1	9.8	9.8
	KT	54,200	10.2	20.3	20.7	1.6	1.7	1.1	1.2	4.3	4.4	3.9	3.9	8.2	8.4
	LG유플러스	14,820	4.7	11.4	11.7	0.8	0.9	0.5	0.6	2.8	2.9	2.8	2.8	8.2	8.5
미국	AT&T	25.7	176.0	129.2	131.9	27.7	29.7	16.4	17.2	48.2	50.1	6.6	6.4	13.9	14.7
	Verizon	50.1	208.3	140.9	143.3	33.2	35.4	20.8	21.5	53.5	55.3	7.0	6.7	19.0	20.0
	T-Mobile	181.5	194.7	94.4	98.7	20.4	24.4	12.0	14.7	37.4	40.5	7.6	7.0	21.9	26.9
일본	NTT	173	100.2	97.6	101.2	10.7	11.2	6.5	6.6	21.2	22.7	9.2	8.9	10.2	10.3
	KDDI	2,981	76.6	40.0	41.4	7.1	7.6	4.5	4.7	11.6	12.2	8.8	8.4	14.0	14.4
	Softbank	5,590	204.7	52.5	56.0	29.7	13.5	20.4	6.9	38.4	18.4	9.2	19.2	24.8	4.2
중국	China Mobile	79.7	224.7	156.1	158.4	22.3	23.0	19.6	20.2	49.3	50.4	3.9	3.8	9.0	9.1
	China Unicom	5.6	22.0	58.3	59.0	2.3	2.4	2.7	2.8	14.3	14.4	1.1	1.1	4.6	4.7
	China Telecom	4.7	82.0	78.1	79.2	5.4	5.7	4.5	4.8	20.1	20.7	3.9	3.8	6.3	6.4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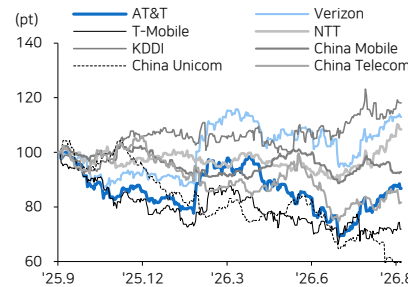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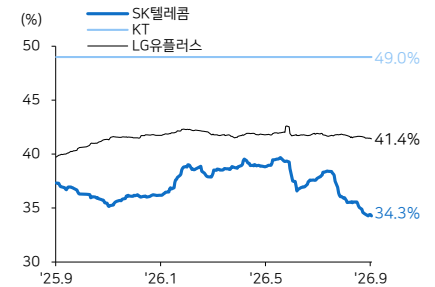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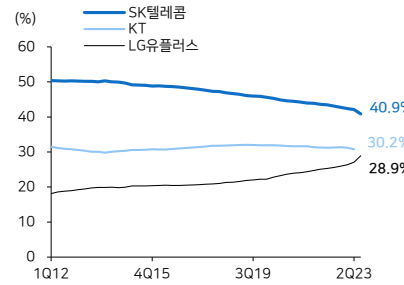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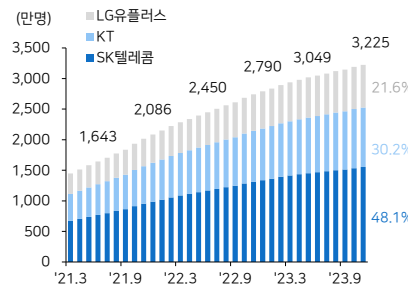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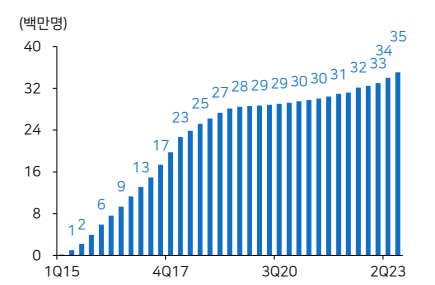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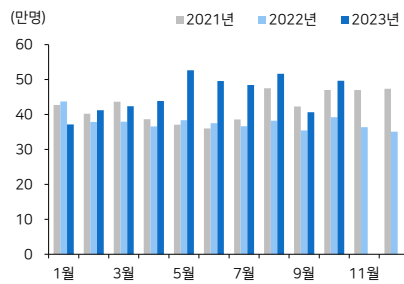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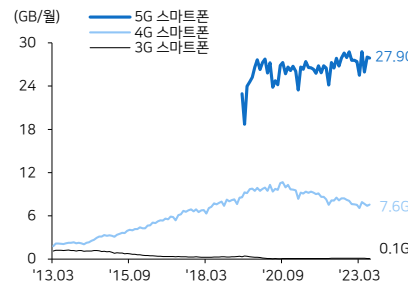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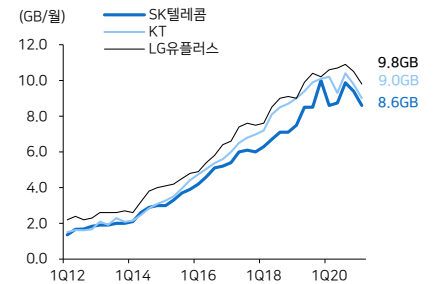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